

#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대거 조정... 정치권·유권자 '혼란'

### 영암, 나주·화순 선거구로... 신안은 목표와 통합

### 담양·영광·장성·함평, 담양 분리해 광양·곡성·구례와 통합

### 정치권, 확정안 확정시 경선 다시 치르거나 조정해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확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남지역 총선거구도의 지각변동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남 10개 선거구 중 6곳이 변경되면 사실상 민주당은 후보 경선을 다시 치르거나 후보 배치를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도 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기존 순천 선거구는 갑과 을 2곳으로 나뉘어 순천 선거구가 2곳으로 늘었다. 반면, 전남 목표와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의 선거구가 4곳으로 통합된다. 전남의 전체 선거구는 10개를 유지하지만, 대부분 선거구가 통합과 분구로 변동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차치단체별로 각각 쪼개져 인근 선거구로 통합된다. 영암은 나주·화순 선거구로 합쳐지고, 신안은 목표와 통합된다. 기존 담양·영광·장성·함평 선거구는 담

양만 분리해 광양·곡성·구례와 합치고, 담양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통합한다. 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등 4곳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

### ■전남 선거구획정안

기존	획정안
목표	목표신안
여수갑	여수갑
여수을	여수을
순천	순천갑
나주화순	순천을
광양곡성구례	광양담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무안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나주화순영암

한다. 국회에서 오는 5일 확정안이 확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경선을 통해 이미 최종 후보를 확정된 선거구와 진행중인 경선을 다시 치르거나 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전남 선거구 10곳 중 5곳의 후보를 이미 확정했고, 3곳 선거구는 이날 후보 경선이 끝나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선을 이미 치른 곳 가운데 이번 획정안에 포함된 선거구는 목표와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4곳이다. 목표는 김원이 후보가,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개호 의원이 단수 후보로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백재욱 후보와 서삼석 의원이 경선을 치렀다. 따라서 민

주당이 이 곳 선거구에 대한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선 일정을 재조정하고 다시 경선을 치른다면 이날 말거나 후보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재경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이동도 불가피하다. 우연찮게 전남지역에 2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가 통합됐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이개호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담양이 광양·곡성·구례와 통합됨에 따라 선거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 의원은 기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서 진행될 권형열·서동용 후보 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일까지 후보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안·신안·영암 선거구의 서삼석 의원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무안과 합쳐진 함평·영광·장성 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개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고향인 담양이 포함된 광양·담양·곡성·구례 선거구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면서 "경선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경선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선거구가 모두 쪼개져 답답할 뿐이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통과된다면 고향인 무안이 포함된 무안·함평·영광·장성 선거구로 옮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신천지, 특정 정당과 유착 밝혀야"

### 이만희 기자회견 때 '박근혜 시계' 의혹 확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전날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말뿐인 사과와 신뢰성 없는 협조만을 앞세웠다. 신천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신도명단 제출과 코로나19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총회장을 살인죄를 고발한 가운데 이 총회장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에이즈를 감추고 고의로 성관계

를 해서 결국 전파했을 때 중상에 해당 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지우기도 했다"면서 "코로나 질병의 위중성 이라든지 치사율 등이 감안되기는 하겠지만 특정 범죄(책임)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천지에 야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특정 정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총회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시계'를 쓴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모태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였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논의 구체화

### 시민단체 창준위 신고서 제출...비례 양보 방식 관건 정의당·민생당 반발 변수...불참시 21대 국회 협치 '난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겨냥 연합정당 참여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3일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정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번호를 후순위로 받는 등 어떤 식으로 '양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용 독자정당 창당에 일단 선을 그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합의체가 추진했던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정석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서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20석 가까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맹점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남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제안한 '비례대표 무(無)공천' 전략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정의당 등 민주·진보진영에 비례대표를 몰아준 뒤 이후 정당 간 협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에 투표하도록 하자는 백낙청 교수의 '전략적 분할투표' 제안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130명이 신청해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내부 반발을 살 수 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대신 다른 민주·진보진영

정당을 찍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데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 측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 민주·진보진영 정당들에 정당 제안서를 보냈다. 정치개혁연합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을 활용한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다. 하지만 당장 정의당과 민생당이 이 역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들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의 협치는 난망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이 먼저 주권자전국회의에 비례대표당 정당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통합당 호남 후보 총선거탁금 전액 지원

### 최고위 의결 거치면 확정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호남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4·15 총선 기탁금 1천500만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 후보자가 추가 공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입장에서 호남은 '협지'로 분류된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나 "호남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지역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천심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공관위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뜻을 당 최고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아직 공관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제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전담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문흥	북광주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지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동명	동부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백운	봉선
·남부 675-5530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상무	서광주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월곡	침단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6 451	·광산 944-0444		